

문화학교 추진 공연문화 앞장

2017년 11월 28일 취임한 제7대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이 문화원 발전과 예산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7월 1일 재선 출했다.

이 원장은 현재까지 ▲지역문화 전승보존 ▲고유문화 창달선양 ▲전통문화 발굴육성이라는 원훈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급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발굴,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향토역사문화에 관한 학술연구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해 익산문화원 별관신축 확정과 익산시민의 종 제작을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서예작품전시(서예, 서예, 서예)와 문화학교(가요, 풍물, 민요, 사물놀이, 한국무용, 취타대, 하모니카, 우쿠렐레, 색소폰, 포크, 단소, 건강강구, 민요체조, 태평소, 오카리나, 민화, 사진 등)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하는 데 장소제공 및 교육지도, 수련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탁월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문화원 전경



이재호 원장

“ 강의실·창고 등 부족한 상태로 수요 예측하지 못하고 세워져 부족한 시설 확보 차원 별관신축 예산 확보 10월 착공

코로나19 극복 위한 익산시민의 종 제작 기부금 기탁 신청 추진

정통성 강조한다면 '무왕 제례' '문화학교'는 문화원의 자랑거리

Q. 현재까지 어떻게 문화원을 운영하셨습니까?
2017년 11월 문화원장 선출 취임후 문화원 업무만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원 본예산과 추경확보를 위해서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를 방문하면서 문화원의 사정과 실태를 설명하며 예산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발전을 위해 모든 행사와 회원이 참여하는 장소는 어디를 불문하고 참관해서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 문제점 및 발전·개선책 등을 발굴해 미래 발전을 위해 항상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익산문화원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익산문화원을 문화시설개선 및 확충되는 것을 외부인사들은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 건물외관, 둘째 내부시설 열악함, 셋째 전통의례식 및 생활사료실 등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익산문화원은 준공한지 20여년이 지났고 그 당시에는 최첨단시설이었으나 현재는 강의실, 창고 및 시청각실 등이 부족함상태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한 교육장소 확보차원의 별관신축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0월 말 경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익산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민의 종을 제작하고자 기부금 기탁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익산문화원의 자랑거리와 정통성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문화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원의 자랑거리입니다. 전통을 잇기 위한 민요, 서예, 풍물교실, 취타대, 한국무용, 단소 반 외에도 창조적 현대화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개살한 만들린, 아코디언, 포크 기타, 색소폰, 하모니카 동아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문화에도 앞장서고 있어 제3회 익산문화원의 날을 통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정통성을 강조한다면 무왕 제례인데 서동축제 개막 프로그램으로 축제 성공개회와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입니다. 익산군 시절 마한제례에서 시작했으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제와 기원제도 문화원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운선 무사항해와 풍년·풍어를 기원했던 성포별신제는 올 20회며 성당포구에서 실시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농악보급원



문화학교 운영



무왕 제례



시티투어

인 읍면동 대상 서동풍물경연대회가 16회째를 맞고, 초중고 사물놀이 경연대회는 22회째로 올해에는 비대면방식의 경연대회로 열립니다.

Q. 원장님의 인생관이나 철학 또는 죄우명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저를 위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잘 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주변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철학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면 변함이 없다'입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이재호 원장 ProFile



-전북 익산 출신 (60)
-남성고 졸업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석사과정 수료

-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리중앙로타리클럽 회장
- 前 국민생활체육 전북족구연합회 회장
- 前 원광보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겸임교수
- 前 이일여자중·고등학교 교장
- 現 마한서각회 회장
- 現 각자협회 전북지회장
- 現 익산문화원장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10대 청소년 모바일 이용률 97.2%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 362.5분
디지털 언어와 1인 방송,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며 진짜와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